

| 어린양의 경배 <반 아이크 형제, 패널에 유채, 1432년. 벨기에 겐트대성당 소장>

금주의 성화

이 그림은 북유럽 초기 르네상스의 걸작으로 알려진 반 아이크의 '겐트 제단화'의 일부이며 묵시록에 묘사된 어린양의 경배, 즉 마지막 날 부활한 성인들이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림 상단 중앙에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떠 계시고, 그 아래 천사들이 둘러싼 제단에는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어린양이 서 있으며, 제단의 사방에서 남녀 순교자들과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를 망라한 성인들의 무리가 모여들고 있다. 그림의 배경은 작가가 상상한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 오늘의 전례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15-21 참조)

오늘은 우리 민족 전래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는 쓸쓸한 이웃과 연옥영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1독서 요엘 2,22-24,26ㄴㄷ 제2독서 묵시 14,13-16 복음 루카 12,15-21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9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자주 성찰하고 고해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12달 오늘만 같아라.”



박광훈 안드레아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오늘 복음에서는 소출을 많이 얻게 된 어떤 부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태풍도 없고, 기후도 좋고, 병충해도 없어서 풍년이 들었나 봅니다. 남아넘치는 곡식 단을 바라보면서 부자는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하면서 행복한 고민에 젖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있는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크고 튼튼한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짹짹 채워놓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리라.”하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그날 밤,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소출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부자를 두고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광고들을 보면 온통 먹고, 입고, 바르는 것들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티영성관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도심에 나가보면 온통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들로 뒤덮여 있고, 사람들은 이런 곳으로 한 여름 밤의 불나방처럼 날아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돈의 위력을 곳곳에서 절실히 보여

주고 있고, 탐욕이 성공한 사람의 미덕인 것처럼 미화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 하느님과 이웃에게는 인색한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들께서 이 복음을 함께 듣고 있다면 이 추석날,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한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추석은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되잡아 주게 해 주는 날입니다. 이번 추석은 바쁘게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조상님들이 먼저가 계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미 떠난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베푸시길 빕니다. 또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12달 오늘만 같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기쁜 추석 보내십시오.

금주의 성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10월 1일)

교구 문화홍보실



천주교회의 성인들 가운데 ‘데레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명한 분이 둘 계십니다. 한 분은 근세 초기에 스페인에 사셨던 분으로 가르멜 수도회를 개

혁하시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남기신 ‘예수의 데레사’ 성녀이십니다. 또 한 분은 흔히 ‘소화(小花) 데레사’라고 부르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이십니다. 앞의 분을 구별하여 ‘대(大) 데레사’라고도 부릅니다.

성인들의 전기를 보면 보통 사람이 도저히 따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소화 데레사 성녀의 짧은 인생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873년 프랑스의 리지외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가르멜 수도회에 들어가셨고, 스물넷의 꽃다운 나이에 그곳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전부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생애였습니다. 성녀 스스로도, 특별한 재능도 없고 학식도 없는데다가 몸도 약한 자신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녀께서는 꼭 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성녀께서는 이른바 ‘작은 길’을 따라 평생을 사셨습니다. ‘작은 길’이란,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작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녀께서는 자서전에서, “만일 작은 꽃들이 모두가 장미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연은 그 봄단장을 잃어버릴 것이고 들판은 다시는 작은 꽃들로 단장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원인 영혼의 세계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녀의 별명인 소화(작은 꽃)는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의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 안에서 오직 사랑하기만을 원하는 것, 그것이 ‘작은 길’입니다.

성녀께서는 남보다 앞서고 싶고 잘나기를 바라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다른 재능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몸이 간혀 있고 병들었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성녀의 자서전은 성녀께서 돌아가신 후 오늘날까지 수백만 권이 넘게 팔렸으며, 돌아가신 지 겨우 26년 만에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성녀께서는 선교사업의 수호자이시고, 잔 다르크 성녀와 함께 프랑스의 수호성인이시며,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97년에 소화 데레사 성녀를 교회 학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지극히 미소하고 가장 감추어진 행동은 종종 위대한 업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 소화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중에서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현장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습니다

이영동 치릴로 신부 | 교구 학교복음화 담당

청소년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 부족은 물론이고 함께 모이는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성당에 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업에 밀려 주일미사만 겨우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성당에 나오는 아이들만 신앙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면 어떨까요? 학교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니깐요. 고등학생의 예를 들면, 오전 8시부터 늦게는 오후 10시까지 학교에 있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가까운 신앙의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동료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보냅니다. 동료학생들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영향이 클 것입니다. 특별활동들(가톨릭학생회, 셀(Cell) 등)을 통해서 신앙을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자 교사들의 신앙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의 신자 학생들의 모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고 신자학생들에게 신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신자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입니다. 특정 종단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립이든 사립학교든 찾아가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교무실에서 수업이 끝



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지만, 신부가 학교에 찾아가면 처음에는 놀랍니다. “뭐 하러 왔느냐?”는 것이죠. 그러다가 몇 마디 대화가 오가면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복음적 가치가 풍부한 곳으로 만들어보자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학교에서 실천해보자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신자 학생들에게 신앙을 불러일으켜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 신부님! 저 퇴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담이 되어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앙교육,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구 내 중·고등학교만 500개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150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직도 갈 곳이 많습니다. 혹시 신자 교사를 알고 계신 분은 꼭 신고(?) 해주십시오. [신고](mailto:tgtjstod@hanmail.net)
(신고 접수처 _ tgtjstod@hanmail.net)

나눔과 섬김의 현장 - 가톨릭근로자회관 편

What's your name?

김선규 세바스티아노 | 가톨릭근로자회관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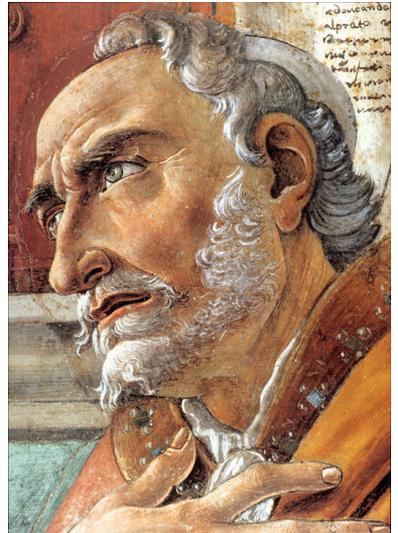
며칠 전 교구 100주년 다문화축제를 같이 준비했던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반가움에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금은 다문화가정 관련 일을 그만두고 농아인(聾啞人, 귀가 들리지 않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아인’이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맞지 않나요?”라고 물어 보았더니 그분은 “농아인들은 그 단어를 안 쓰고 싫어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그들은 입과 귀를 쓰는 대신 다른 언어, 즉 수화로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농아인들도 이주민들처럼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구나.’하고 생각하며 이주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부르는 단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설공주가 흑인이라면 어떨까요?”하고 질문을 던지면 안 어울린다는 듯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모습이 흑인으로 표현된 그림을 보고 신자분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문화가정이란 말이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튀기, 코필, 코시안, 혼혈 등 다양한 단어로 그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 이주노동자를 상담할 때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보고 “이름이 ○○○씨가 맞나요?”하

고 물었더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눌한 한국어로, “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스스로도 제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계시던 업체에서는 ‘세 번째 베트남 직원을 줄여서 ‘남삼’이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 주시자 자캐오가 회개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구 엄마(아빠)가 아니라 부인(남편)의 이름으로, 직장의 동료들을 호칭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북 아프리카 태생으로, 피부색이 검은 베르베르 족 출신이었다.

■ 대구광역시립희망원 견진성사



대구광역시립희망원 견진성사가 9월 19일(수) 오전 10시 희망원 내 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 날 117명이 견진성사를 받았다.

■ 결식아동돕기 제2회 7080 밥콘서트



결식아동돕기 제2회 7080 밥콘서트가 9월 22일(토) 대덕문화전당에서 오후 4시, 7시 30분 2회에 걸쳐 열렸다. 이 날 콘서트에는 약 800여명의 관객들이 참석하여 작은 정성을 모았다. 밥콘서트의 수익금은 교구 사회복지회에 전달되어 결식아동돕기 성금으로 쓰인다.

다시 여러분의 품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 2012년 한티순교성지 도보성지순례



2012년 한티순교성지 도보성지순례가 9월 22일(토)에 교구 평협(담당사제 : 박영일 바오로 신부) 주최로 열렸다. 가산산성을 출발하여 한티 순례길을 지나 순교자 묘역(1기~30기)을 순례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후에는 한티 음악제가 이어졌다.

교구 일정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0월 4일 목요일은
(故)윤광제 다투 신부님 2주기입니다.

- ▶ 가톨릭푸름터 50주년 미사
_ 일시: 10.6.(토) 11:00
- ▶ 소화성당 40주년 및 견진
_ 일시: 10.7.(일) 10:30

성소 | 피정

성소자 모임 및 나들이

기간: 10.5(금) 16:00~7(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만 32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10.13(토) 16:00

장소: 관구본부 (서강대 옆)

주제: 예수회의 역사와 가톨릭 교회

대상: 35세 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8589-9880

작은형제회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10.12(금)~14(일)

장소: 대전 목동

대상: 만 31세 이하의 남성

접수: (010)9890-8809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

기간: 10.12~14 / 11.19~21

12.14~16(피정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 최봉도 신부

문의: (010)5613-1762 / (054)971-0722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둘째 주일 / 14:00

장소: 과천본원

문의: 김 라우렌시아 수녀

(010)5449-3166

교육 | 모집

프란치스칸 영성강좌 및 전이예식 미사

일시: 10.3(수) 14:00~17:00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강사: 김종수 신부 (영성신학 박사)

문의: 632-9800

젊은이 모임

옛 멤버들을 초대합니다

(70년후반~80년초) 범어동에서 활동 하였던 성모기사회 옛 멤버 초대

장소: 곤벤뚜알 프란치스코수도회

문의: 박상규(마리아교보)신부

(010)5380-8615

살레시오 국제청소년자원봉사단 모집

일시: 2013년 1월, 캄보디아 포이펏

대상: 고1~대학생 및 20대 청년

접수: cafe.naver.com/sdbkovy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문의: (02)828-352450

50주년 무아장학회 후원

운영: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대상: 지적장애인 고아원, 소신학교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44-4702 / (010)2402-4702

제41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설명회

초~고: 1.5(토)~27(일), 3주

대·일반: 1.1(화)~2.17(일), 7주

설명회: 10.13(토) 14:00

장소: 매일신문사 8층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시이엔티, (02)3446-4253

미사안내

지속적인성체초배회 월례미사	10월 1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성모기사회 월례미사	10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월배수도원 2층 경당
푸른군대 첫 토요일 신심미사	10월 6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서정희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전문의 원장 강 일(베드로)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공피부과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흉터
기미 및 레이저 클리닉 운영
T.053-710-0710 피부과 전문의
계명대 동신의료원 외래교수
팔달신시장 옆 덕인빌딩 5층 원장
(주차장 완비) 공수득(가브리엘)

JINSUNG Architects & Interior
진성건축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 시공 및 상담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수능 집중력을 높여
성적을 올려라!
원방한의원 총명공진단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해아림한의의원
뇌기능검사후원 / 집중력 / 우울증
공황장애 / ADHD / 틱 / 키성장
NAVER 해아림한의의원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코리아알트만 법원방향
결혼평보회사 코리아 알트만 뉴영남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법원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황금네거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법원 방향
TEL 743-4488 FAX 744-1594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하는

페이지아트 사르엔 연구회 제5회 공개강좌

일시: 10.6(토) 14:3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명동) 성심교육관

강사: 곽진상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주제: persona에 대하여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성령새신 추계 대구대회

일시: 10.27(토) 10: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강사: 차동엽 신부 / 대상: 일반

문의: (054)954-0951

대안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오르간 전공 반주자 모집 (유급)

문의: (010)2798-0911

다문화 아카데미 1기 봉사자 1단계 교육

일시: 10.10~12.19(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교육비: 5만원 / 신청: 10.8(월)까지

주관: 대가대 다문화연구소

문의: 850-3978, 3606

행사 | 모임

가톨릭 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일시: 10.8(월) 20:00

장소: 상인성당

찬조출연: 대구챔버라이어, 소프라노

김유미 / 티켓구입: 2만 원

문의: 상인성당, 639-1900

감사와 봉헌 1987~2012

‘마음을 드높이’

고산성당 설정 25주년 행사에 초대합니다

음악과 문학의 밤: 10.13(토) 19:00

감사와 봉헌 미사: 11.4(일) 11:00

주관: 고산성당 은경축위원회

795-2261

한티순교성지 꽃봉헌회 작품전시전

기간: 10.11(목)~16(화) 15:00

장소: 한티순교성지 내 피정의 집 친교실

개장시간: 10:00~17:00

문의: 성지사무실, (054)975-5151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 모임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입문과정: 10.14(일)

본과정: 10.19(금)~21(일)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문의: 250-3064 / (010)4162-5393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고

10월 첫째주 가나강좌 안내

일시: 10.7(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원, 당일접수 (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23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10.6~(5주간 매주 토) 15:00~21:00

장소: 3대리구청 (월성성당)

대상: 초등학교생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대구대교구 어머니학교 모집

16차: 10.11(매주 목, 5주간) 9:30~14:00

17차: 10.12(매주 금, 5주간) 9:30~14:00

장소: 교구청별관 1층 강당 / 10만 원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010)2652-7991

가톨릭근로자회관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0.2(화) 19:00~20:30 월3만원

과정: 창세기, 마태오(화, 목 저녁 강의)

문의: 253-1313 / (010)6506-3303

안내

군위묘원 성묘안내

추석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03.1.10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지께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고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관리과, 250-3003

10.1(월)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 경주지역 군중후원회미사가 추석 명절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대표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 053)639-8998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연득(아오스당) 배성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신장이세부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상영(마카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품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대구 안과

마이크로 라식 · 에피 라식 · 알티산 렌즈
백내장 수술 · 녹내장 · 사시교정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당), 조영수(다미아노)
☎(053)651-2233

서부정류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 300m 좌측

청소, 방역소독
저수조 청소, 시설경비

☎ 사회적기업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가정처럼 돌봄)
각종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과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논술
(수리, 언어, 과학)

고등부 · 고3수능 · 재수생 · 중등부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공자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혜(안젤라)
신뢰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256-6300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원이 함께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가요양원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입소 성가요양원 054)976-8122
문의 성가어르신복지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TEL : 745-6633~4

지하철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수성못방향-300m